

##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New Interpretation of Hongikinkan() Idea

---

<b>저자</b> (Authors)	정영훈 Jeong, Young-Hun
<b>출처</b> (Source)	<a href="#">단군학연구 (34)</a> , 2016.6, 149-186(38 pages) <a href="#">Journal of Dangun Studies (34)</a> , 2016.6, 149-186(38 pages)
<b>발행처</b> (Publisher)	<a href="#">단군학회</a> Dangun Studies Association
<b>URL</b>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 E067I6412">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 E067I6412</a>
<b>APA Style</b>	정영훈 (2016).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단군학연구(34), 149-186
<b>이용정보</b>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20 11:4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정영훈\*

- |                  |                |
|------------------|----------------|
| I. 머리말           | IV. ‘인간’은 누구인가 |
| II. 단군신화 속의 홍익인간 | V. 맺음말         |
| III. ‘홍익’의 의미    |                |

## 【국문초록】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고대 한국인이 국가와 세상에 대해 갖고있던 생각을 천명한 말이었을 것이다. 그같은 사상은 아마도 고조선 시기에 단군신화가 만들어질 때부터 신화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자가 유입된 후 구전의 단군신화가 한자로 번역될 때, 현재와 같은 한자어로 번역되었을 것이다. 한자로 번역할 때 불교식 용어인 ‘홍익중생’이 아닌 ‘홍익인간’이 선택된 것은, 단군신화를 일관한 인간중심주의와 현세주의적 세계관을 두고 볼 때, ‘홍익’의 대상은 ‘중생’이 아닌 ‘인간’이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홍익인간은 불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고유의 사상이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논문에서는 ‘弘益人間’을 [弘益+人間]의 구조로 분해하고, 다시 [弘+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益+人間]으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천착하였다. 필자는 먼저 ‘홍’에 대한 일반적 훈독이 ‘클 홍’임을 지적하고, 홍익인간 해석에서도 ‘널리’보다는 ‘크게’로 읽어줘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홍’의 제대로 된 뜻은 ‘크면서 넓은 것’인 바, ‘널리’에는 ‘크다’는 의미가 제외되어 있지만, ‘크게’에는 ‘넓다’는 의미가 동반되어 있음을 유념한 것이다. ‘익’은 ‘더한다’거나 ‘돕는다’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 그 핵심취지라 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공동체’나 ‘인간세상’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 외에 ‘사람’이라는 뜻과 ‘백성’이라는 뜻, ‘남’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홍익인간이 추구하는 사상적 지향점은 인본주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홍익인간은 우선은 국가와 권력의 존재이유와 방향을 제시하는 건국이념이었지만, 그 적용범위는 인류사회를 규제하는 문명장치 전반에로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인간사회를 정화하고 결속시키는 공동체윤리를 천명한 것이기도 하였다. 홍익인간은 국가와 권력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세상을 규제하는 각종의 문명장치들에 대하여 그것이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개개인들에게는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 삶을 살 것을 촉구한다.

※ 주제어 : 홍익인간, 단군신화, 인본주의, 고유사상, 고조선, 교육이념.

## I. 머리말

홍익인간은 한민족의 건국이상이자 교육이념이다. 홍익인간이 가지는 이같은 의의에 상응하여 그를 다룬 적지않은 연구 저술들이 축적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弘益人間’이라 표기된 한자어의 글자뜻과 단군신화 문맥 속에서의 의미에 대한 촘촘한 분석에 기초하지 않았던 것 같다. 홍익인간과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들을 성급하게 동원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홍익인간 연구의 가장 큰 난점은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신화가 홍익인간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주지 않는다는 아쉬움은 홍익인간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문헌들을 이용하여 내용을 채우려는 조급함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홍익인간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자로 표기된) 글자뜻과 신화 속에서 그것이 거론된 맥락을 헤아려서 그 의미와 지향하는 바를 분석해내는 것이 우선 과업이라 본다. 분석 작업에서는 최대한의 객관성이 요구되며, 상상력을 발휘하되 지나친 애정은 절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같은 노력이 경주된다면 (굳이 연관성이 증명되지않은 자료들을 무리하게 동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홍익인간이라는 고대의 아이디어가 지향하는 세상과 삶의 모습에 대한 좀더 많은 것을 추출해낼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로 번역하는 ‘홍익인간’에 대한 기왕의 해석방식은, ‘홍’에 대한 자전상의 해석이 ‘클 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을 크게 행복하게 하라”가 좀더 본래취지에 가까운 해석이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신화 속의 홍익인간은 신시를 개창하고 운영하는 지침이나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그것은 국가와 정치의 성격과 사명에 대해 언급한 정치적 명제였던 것이다. 홍익인간은 국가와 권력의 존재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고 선언한다.

홍익인간의 ‘인간’을 인간세상이나 공동체로 해석하는 기왕의 견해들도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 단군신화 문맥속의 ‘인간’은, 동물이나 신과 구분되는 실존적 개인으로의 ‘사람’이기도 했고, 정치사회적으로는 피치자(백성)이기도 했으며, 인식주체이자 욕구주체로의 ‘나’와 대립하는 ‘남’이기도 했던 것이다. 홍익인간이 불교의 영향 아닌 고유적 관념이라는 점도 제대로 해명될 필요가 있다. 구전의 고대 신화가 한자로 번역되어 채록되는 과정에서 고유의 관념이 현재와 같은 한자어로 번역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익인간 사상을 관통하는 세계관으로의 인간중심주의와 현세주의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했다고 본다.

이 논문은 홍익인간의 의미와 지향가치에 대하여 연구자 나름의 관점에서 분석해본 것이다. 논문은 홍익인간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 먼저, 단군신화에서 그것이 거론된 맥락과 弘益人間이라는 한자어의 의미를 천착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홍익인간은 “人間을 弘益하라”는 구조인 바, ‘弘益’의 의미와 ‘人間’의 의미를 한자 뜻과 신화속의 맥락을 분석하여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홍익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해보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홍익인간이 불교의 영향속에 출현한 것이 아닌 고유적 관념이 번역된 것이었다는 점도 제시할 것이다. 필자는 고조선 시기에 만들어졌을 단군신화 속에 건국의 목적이나 추구가치를 천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훗날 구전의 단군신화가 한자로 번역되어 채록되는 과정에 국가목적 부분의 아이디어가 ‘홍익인간’으로 번역되었다고 생각한다. 홍익인간은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촉구한 불교와 달

리, 중생 중에서도 특히 인간에 대한 배려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같은 지향은 전적으로 고유의 (단군신화 특유의)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산물이라 본다. 연구에서는 먼저 단군신화 속에서 홍익인간이 출현하는 맥락을 확인하는 일부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 II. 단군신화 속의 홍익인간

홍익인간이라는 고유의 관념을 전하는 문헌은 13세기 후반에 편찬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등 두 사서이다. 두 문헌은 동국 역사의 첫머리에 단군의 건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기]나 [본기] 같은 고기록들을 인용하여 전하고 있는데, 단군신화로 불리는 이 고기록 안에서 홍익인간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 두 문건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래에서 다시 인용한다.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었다. 아사달에 도읍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니 요임금과 같은 때(與高同時)이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제석이라 함)에게 서자 환웅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에 뜻을 두어(數意天下) 사람이 사는 세상을 탐냈다(貪求人世) 한다. **아버지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弘益人間) 해 줄 만했다.**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어, 가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였다(遣往理之). 환웅이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에 있는 신단수 밑에 내려오니,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 분을 환웅천왕이라 부른다. 풍백·우사·운사와 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약 등을 거느리고 인간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면서 세상에 머물며 다스리고 교화하였다(在世理化). 이 때 범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서 살면서 항상 神雄에게 빌어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다(願化爲人). 이에 신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르되,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일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라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받아먹었다. 그러나 곰은 3.7일을 기(忌)하여 여자의 몸을 얻었지만,

호랑이는 기하지 못한 까닭에 사람의 몸을 얻지못하였다. 웅녀는 혼인할 데가 없어서 신단수 밑에서 야기 배기를 빌었다. 이에 환웅이 잠깐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요임금이 즉위한 50년 경인에 (당요가 즉위한 원년은 무진년이므로 당요50년은 정사이지 경인이 아니니 그것이 의심된다) 평양성에 (지금의 서경) 도읍하고 조선을 처음 일컬었다. 다시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으니 궁홀산이라고도 하고 지금의 금미달이다. 1500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주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로 다시 돌아와 은둔하여 산신이 되었으니, 수가 1908세이다.”<sup>1)</sup>

“[본기]에 이르되, 상제 환인에게 서자가 있었는데 웅이라 하였다. (환인이) **웅에게 이르기를 삼위태백으로 내려가 홍익인간 하겠는가 하였다.** 이에 웅이 천부인 세 개를 받아 삼천명의 뿔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로 내려왔다. 이 분이 환웅천왕이다. 환웅천왕이 손녀에게 명하여 약을 먹게하여 사람의 몸을 이루고 단수신과 혼인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니 이름이 단군이다. 조선의 땅을 차지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런 연유로 신라·고려·남북옥저·동북부여와 예맥은 모두 단군의 후예인 것이다. 1038년을 다스리다가 아사달로 들어가 신이 되었으니 죽지 않은 것이다.”<sup>2)</sup>

- 1) 魏書云 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經云無葉山 亦云白岳 在白州地 或云在開城東 今白岳宮是]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古記云 昔有桓因 [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 [即太伯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為人 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為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 (唐堯卽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 (今西京)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一作方)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 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三國遺事> 卷第一, 기이 고조선(왕검조선))
- 2) 本紀曰 上帝桓因有庶子 曰雄云云 謂曰 下至三危太白 弘益人間歟 故雄受天符印三箇 率鬼三千 而降太白山頂 神檀樹下 是謂檀雄天王也 云云 令孫女飲藥成人身 與檀樹神婚 而生男名檀君 據朝鮮之域爲王 故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穢與貊 皆檀君之壽也 理一千三十八年入阿斯達山爲神 不死故也 (<帝王韻紀> 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 前朝鮮紀])

이상과 같은 단군신화 속에서 홍익인간이 거론된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목된다. 우선 신화속에서 홍익인간은 천신 환인과 그 아들 환웅이 지상의 인간세상에 대하여 갖고있던 생각으로 출현한다. <제왕운기>에서는 환인이 환웅에게 지상에 내려가 홍익인간 해볼 의사를 갖고있는지를 물은 것으로 나오는데,<sup>3)</sup> 이로써 보면 홍익인간은 천신 환인이 인간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였던 이상이며, 그같은 생각을 환웅에게 지시하여 지상에 내려가 구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더 합리적으로 검토해보면, 홍익인간은 상고인들이 세상사에 대해 (특히 국가나 권력에 대해) 갖고있던 생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가와 권력 및 지도자가 담당해야 할 기능과 사명에 대한 고대인의 관점과 바램을 하느님 환인의 이름과 권위를 빌어 천명한 용어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분석할 지점은 신화가 말해주는 홍익인간의 실천내용에 대한 것이다. 신화에서는 홍익인간이 어떤 활동이나 원칙을 가리키는지를 구체적으로는 제시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제공해주고 있다. 곧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서 신시를 열고는 풍백·우사·운사 등을 거느리고 인간세상의 360여사를 주재하였다 한 ‘재세이화’의 내용이 곧 홍익인간이라는 지침을 실천한 내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시는 지상에 내려와 처음 건설한 인간공동체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풍백·운사·우사는 신시의 지도자(통치자) 환웅을 보좌한 참모나 관료이며, 주곡·주명.. 등 ‘360여사’는 신시공동체가 치결한 공적 업무들이었다. 주곡·주명.. 등을 관직명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곡을 주관하고, 병을 주관하

3) 홍익인간의 ‘홍익’을 술어 아닌 수식어로 보아 홍익인간을 ‘홍익하는 인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이도 있는데, (한기인, 『한국교육이념의 연구』, 태극문화사, 1992, 88쪽) <제왕운기>에서 홍익인간이 거론된 맥락까지 고려하면, 홍익은 수식어 아닌 술어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고...”라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홍익인간은 곡·병·명·형·선악 등 인간세상-정치공동체-국가가 당면하고 있고 (인간행복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요구들-공동사무들과 관련된 명제라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홍익인간이 가지는 일차적 의미는, 국가나 권력 또는 통치행위가 추구하고 입각해야 하는 목표가치나 행동원칙 또는 실행 지침으로 제기된 것이었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홍익인간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메시지였으며, 국가의 목적이나 기능 및 운영원리에 대해 고조선인들이 갖고있던 생각을 표현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이 신시의 이념은 단군이 고조선을 건설할 때도 계승되었으리라 상정할 수 있으며, 홍익인간을 고조선의 ‘건국이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같은 이해에 기초한 것이었다. 물론 고조선 건국은 한민족의 역사상 최초의 국가로 이해되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홍익인간은 민족적 건국이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단군신화에 대한 분석에서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신화의 전반을 관통하는 인간중심주의적 사상과 현세주의적 세계관이다. 단군신화는 철저하게 인간세상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스토리가 전개된다. 인간은 보살피주어야 할 대상이고 ‘되어야 할’ 모델이었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은 지상의 인간세상을 탐하였고,<sup>4)</sup> 지상에 내려와서는 인간세상의 360여가지 일을 관장하였다. 환웅이 보살피고 신시에서 통치

4) 이 “인간세상을 탐하여 구했다”로 번역되는 ‘貪求人世’가 구체적으로 인간세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였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탐구인세’는 결국 ‘홍익인간’하고자 하였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으며, 신시에서 인간세상의 360여가지의 일을 처리하여 ‘재세이화’한 것이 그 구체적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것은 인간세상을 정복하거나 지배하고자 하였다는 의미는 아니었으며, 어려운 삶을 살고있는 인간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자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해야했던 대상은 인간이었고, 주곡·주병·주명·주형·주선악 등 사무는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사무였다. 옹녀 역시 인간이 되고자 하였다. 인간은 신보다는 불완전하지만 짐승보다는 높은 단계의 존재였으며, 꿈은 인간이 되기 위하여 인고의 기간을 거쳐야 했다. 홍익인간이라는 명제는 단군신화의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의 백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단군신화의 인간중심주의는 또 내세 아닌 현세에서의 복지와 행복을 중시하는 현세주의적 지향을 동반한다. 신화 속에서 언급된 삭의 천하·탐구인세·재세이화의 관념은 고대인의 현세중심적 사고를 반영한다. 환웅이 지상에 내려온 것은 거기에 보살펴주어야 할 사람들(인간)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함이었다. 신시나 고조선은 그같은 현세적 목적을 위한 기관이었고, 주곡·주명 ... 등 행위는 현세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들이었다. 환웅이 내려온 삼위태백은 인간존재들이 살아가는 현세속의 공간이었다. 특히 재세이화의 ‘재세(在世)’는 세상에 머물며 인간과 함께 산다는 의미이며, 단군신화에 반영된 현세주의적 세계관과 인간중심적 사고를 드러내주고 있다. 단군신화가 추구하는 행복은 내세에서의 구원이나 현세에서 벗어난 해탈이 아니었다.<sup>5)</sup> 홍익인간에 대한 이해는 단군신화를 지배하는 인간중심주의 및 현세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5) <삼국유사> [고기]에서는 단군이 은퇴한 후에는 죽지않고 구월산의 산신이 된 것으로 적고있는데, 구월산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간이었고, 산신 역시 이 세상에서 인간과 소통하는 존재였다. <삼국사기>에서는 단군을 ‘선인왕검’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는데, (<삼국사기> 17권 동천왕조,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단군을 선인·신선으로 표기한 것은 그가 죽지않고 이 세상에서 불로장생하는 존재임을 나타낸 것이다. 신선사상도 현세주의적 사생관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더 살필 것은 홍익인간의 불교유래설에 대한 것이다. 홍익인간의 성립배경에 대해 추적하는 연구자들 중에는 불교 문헌에 나오는 ‘弘益衆生’·‘饒益衆生’ 같은 용어가 홍익인간과 유사하고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이 불교 승려라는 점 등을 들어, 홍익인간이 불교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라 추측하는 이들이 있다.<sup>6)</sup>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그와 다르다. 곧 홍익인간은 불교유입 이전의 고유적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홍익인간을 전해준 <고기>나 <본기>는 (유교나 불교 같은 외래종교의 영향하에 성립한 문헌이 아니라) 조선-동이민족 고유의 정체성에 집착하는 선가계의 문헌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며,<sup>7)</sup> 그들이 전한 단군신화와 홍익인간

6) 박선영, 「한국교육사에 있어서 불교사상」, 『한국교육사학』2, 1978 ; 민영규, 「庸齋 선생과 홍익인간의 문제」, 『(庸齋)白樂濬博士記念講座』, 대한기독교서회, 1992 ; 유명인, 「홍익인간의 종교적 고찰」, 한민족공동체연구소 제12차세미나 (대주제: [한국의 고대사 그리고 비교공공성],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8.20.) 발표논문 등 참조. 박선영교수는 원효의 <大乘起信論疏>에 나오는 ‘弘益衆生’이나 다른 대승경전 도처에 나오는 ‘饒益衆生’·‘利益衆生’ 등의 용어를 들어 홍익인간이 불교사상에서 유래하였다고 추측한다. 이보다 먼저 민영규교수는 당나라 승려 道宣(596-667)이 편찬한 <續高僧傳>에 나오는 ‘弘益之方’ 등의 용어에 주목하였고, 유명인은 일연과 동시대를 살았던 지눌이 쓴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에 나오는 ‘普利群生’이라는 용어도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불교문헌에서는 아직 홍익인간이라는 용어가 찾아지지 않으며, 불교의 교리상 홍익의 대상을 중생이 아닌 인간으로 한정하는 관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7) 이 非儒·非佛의 仙家(=郎家·道家)는 단군과 민족상고사 및 동이민족의 고유적 정체성에 대해 관심이저은 흐름인 바, 선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고할 것. 신체호, 「조선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 ; 이능화, 『조선도교사』 ; 차주환, 『한국 도교사상연구』,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78 ; 한영우, 「17세기의 반존화적 도가사학의 성장」, 이우성 외, 『한국의 역사인식』, 창작과 비평사, 1976 ; 최삼룡, 「선인설화로 본 한국고유선가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과 도교사상』, 새문사, 1990 ; 도광순, 「한국의 신선사상」, 『현대와 종교』 6집 ; 정영훈, 「규원사화에 나타난 민족의식」, 『정신문화연구』 39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김낙필 외, 「한국 신선사상의 전개에 관한 연구」, 『도교문화연구』 15집, 도교문화학회, 2001 ; 정영훈, 「단군민족주의의 前史」,

역시 고유적 전승을 반영한 것이리라 판단한다.

단군신화는 아마도 고조선이 존립하던 시기에 그 골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sup>8)</sup> 그리고 그 신화속에는 국가(권력)의 목적이나 기능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곧 훗날 홍익인간이라 번역된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같은 단군신화는 문자가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을 것이다. 그러다가 한자가 유입되고 한자를 이용하여 역사를 편찬·기록할 무렵에 한자로 번역되게 되었다. (한자로 채록된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고기]나 [본기]가 저술된 시기일 수도 있고 그보다 오래 전일 수도 있다) 단군신화를 한자로 번역한 번역자는 인간세상에 대한 환인의 관심사를 어떻게 번역할지를 두고 고민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당시 불교계 지식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홍익중생’ 같은 표현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홍익중생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도달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구전의 신화 속에 담겨있는 고유의 아이디

---

『단군학연구』 8집, 2003 등을 참고할 것.

8) 단군신화의 핵심 테마는 고조선의 국가와 권력이 하늘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이며, 그같은 증거는 고조선의 통치세력이 자신들의 통치를 미화하려는 의도하에 만든 것이라 보는 것이 남북 학계를 망라한 일반적 견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추정은 신화의 수혜자나 창작의도를 검토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 점 외에도, (1) 단군신화에 보이는 웅녀 이야기 등은 동북아시아 고대민족의 시조신화에서 자주 찾아진다는 점과, (2) 단군신화의 내용이나 형식은 삼국시대의 건국신화들보다 훨씬 오래된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 (3) 일연이나 이승휴 등 고려조의 지성들이 자신들의 상식과 배치되는 신화를 날조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 (4) 단군신화가 삼국시대나 그 이전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방증자료가 있다는 점 등에 주목한다. 일부에서는 단군신화가 13세기 몽고침략시기 고려에서 일종의 민족주의적 의도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나, 필자는 단군신화의 골조는 단군의 후손이 통치하던 고조선시대에 성립했을 것이라 판단한다. 물론 삼국의 첫머리에 단군을 설정하고 열국을 단군의 후예로 규정하는 역사인식은 후에 (고려초나 신라통일 후에)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어는 불교사상 속의 홍익중생과는 그 의미와 지향이 달랐던 것이다. 홍익중생은 ‘홍익’ 행위의 대상을 윤회의 고해에 빠져있는 모든 생류를 의미하는 ‘중생’으로 설정하고 있지만,<sup>9)</sup> 단군신화의 세계관은 앞에서 말하였듯이 철저하게 인간중심주의·현세중심주의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홍익’은 불교 문헌에서 취했을 수 있다.<sup>10)</sup> 그러나 홍익의 대상은 ‘중생’이 아닌 인간이어야 했다. 그리하여 선택된 번역어는 ‘홍익인간’이었다. [홍익+인간]으로의 홍익인간은 불교와 상관없이 고유적 연원을 가진 관념이었다 할 수 있다. 홍익인간 아이디어는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 속에 포함되어 구전되어 오다가, [고기]나 [본기] 같은 비유·비불의 문헌 속에 한자로 채록되었고,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에 인용되어 오늘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다.<sup>11)</sup>

9)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의 의미는 6道を 윤회하는 모든 살아있는 무리를 말한다. 6道는 중생들이 선악의 업보에 따라 윤회하는 6가지의 세계, 곧 지옥·아귀·畜生·修羅·人間·天上의 6가지를 가리키며, 여기서 인간은 천상계와 수라계 사이에 존재하는 생류를 가리킨다. 인간은 중생의 하나이며, 천상도 지옥도 아니며 축생도 아닌 현세의 존재이다. 불교의 홍익중생·요익중생이 지향하는 바는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류에 대한 배려이지만, 홍익인간의 지향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춘다.

10) ‘홍익’이라는 말은 신라말기의 학자 최치원(857-?)의 글과 고려시대 이규보(1168-1241)의 글에도 나온다. (조경철, 『홍익인간의 인간관과 사회통합』, 한민족공동체연구소 15차포럼 발표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12.5)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면 조선시대에는 홍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로써 보면 ‘홍익’은 굳이 불교적 연원을 거론할 필요없이 식자층에 널리 사용되던 용어였다 할 수 있다.

11) ‘고유성’이라는 관념은 자주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가리키는 바가 모호하다 할 수 있다. 언제 누가 갖고있던 것을 ‘고유적’이라 할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홍익인간이 한민족의 고유사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유교 불교 등 외래문화가 유입되기 이전에 고대 한국인에게 공유된 문화라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그것이 한민족의 문화역량과 감각이 작용하여 생산된 문화라는 점이다.

홍익인간은 13세기 문헌에서 거론된 이후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거론하거나 주목되지 않았다.<sup>12)</sup> <세종실록> 지리지와 [응제시주]에 ‘下化人間’이라는 표현이 보이지만, 이 ‘하화인간’은 “지상에서 인간을 다스린다(교화한다)” 정도의 의미이므로, 인간을 널리 (크게) 돕는다는 의미의 홍익인간과는 그 함의나 지향이 크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sup>13)</sup> 홍익인간과 유사한 표현이 출현하는 것은 한말 대종

12) 서영대교수가 수집하여 편집한 「고려시대-1910년까지의 단군관련자료」(서울대종교문제연구소 편, 『단군 그 이해와 자료』, 1994 수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문헌 중에는 <단종실록>(즉위년 6월 기축조)과 안정복의 <동사강목>(附卷中 [怪說辨證]), 이의백의 <梧溪日誌集>(단군내력실기) 등에 홍익인간이 보이는데, 해당 부분은 모두 <삼국유사>의 [고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유가쪽 사서들이 홍익인간을 전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단군시대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환인과 환웅에 대한 얘기는 제외하고 단군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 건국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홍익인간은 환인과 환웅의 이념이었고, 비유교적 관념이기도 하였다. <규원사화>(1675) 같은 선가계 사서 역시, 환인-환웅-단군시대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적극 천명하고 있으면서도, 홍익인간은 거론하지 않고 있는데, 이 대목은 선가들 역시 홍익인간이라는 명제가 가지는 의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말에 단군의 자손으로의 민족정체성을 열심히 정립해가던 신채호나 최남선도 홍익인간은 특별하게 거론하지 않았는데, 홍익인간은 이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홍익인간은 1920년대 신민족주의 이론가들에 와서 부활하게 된다.

13) 檀君古記云 上帝桓因有庶子名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 降太白山神檀樹下 是謂檀雄天王 令孫女飲藥成人身 與檀樹神婚而生男名檀君 立國號朝鮮 朝鮮尸羅高禮南北沃沮濊貊與貊 皆檀君之理 (<세종실록 지리지> 평안도 평양조) ; 古記云 上帝桓因有庶子曰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率徒三千 降太白山神檀樹下 是謂檀雄天王也 桓或云檀 山即今平安道熙川郡妙香山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生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應帝詩註) 두 문헌에서는 환웅이 지상의 인간사와 관련하여 욕구한 것을 ‘下化人間’이라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下’는 지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化’란 말은 어떤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교화나 덕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意欲下化人間’은 지상에 내려가 인간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는 말이며, 특히 세상의 인간을 교화하고자 하였다는 정도의

교측 경전에 와서이다. 대중교 경전 [신사기]의 [치화기]에 ‘홍익인세’라는 구절이 보이는 것이다.<sup>14)</sup> 그러나 대중교 역시 초기에는 홍익인간을 특별히 중시하지 않았으며,<sup>15)</sup> 이같은 상황은 신채호나 최남선

의미가 되겠다. 말하자면 식의천하·탐구인세·홍익인간·재세이화로 표현된 고유의 관점이 집약된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취지는 결국 홍익인간으로 집약될 수도 있을 것이며, 아마도 하화인간으로 번역하여 수록한 이들은 그같은 의미상 함축성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화인간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하는 변화의 방향이나 목표 또는, 인간에게 베풀고자 한 행위의 내용에 대해 알 수가 없다. 뒤에서 이어 서술한, “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악을 거느리고 인간의 삼백육십여사를 주재하면서 재세이화하였다” 한 통치내용이 하화인간의 구체적 내용일 것으로 짐작되지만, 하화인간은 홍익인간과 비교할 때, 덜 구체적이며, 인간을 봉사의 대상이 아닌 통치나 교화의 대상으로만 간주한 한계가 있다.

- 14) 대중교총본사, 『역해종경사부합편』, [신사기]. 이 [신사기]는 1904년경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단군교라는 이름하에 포교활동을 시작한 백봉 교단으로부터 홍암 나철에게 전달된 경전의 하나이다.
- 15) 일부에서는 홍익인간사상이 고조선의 건국이념으로서 민족사 속에 연면히 전해지면서 실천되어 왔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홍익인간이라는 용어의 거론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면 이같은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홍익인간이 제기되고 잊혀졌다가 재발견되는 과정은 C.G.Jung이 제시한 ‘집단무의식’ 개념을 원용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홍익인간은 좋은 국가나 세상에 대한 고대인의 여망을 반영한 말이었으며, 기본적으로 民(민중·인민·피치자·약자)의 희망이자 요구였다. 좋은 국가와 세상을 향한 여망과 요구는 한국인의 집단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이후의 한국사 속에 개입하고 표출되었다 할 수 있다. 때로는 억압되고 후퇴하였지만, 직간접적으로 주장되기도 하였다. 폭정에 대해 민중이 저항했던 사건들이나 역대 지배자들이 천명하고 실천한 민본·위민의 정책들은 이 집단무의식이 표출되고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군신화에서는 이 여망과 지향이 홍익인간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좋은 국가와 세상을 향한 고대인의 집단무의식을 대변·대표하는 용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한국사는 홍익인간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홍익인간은 한국사를 통하여 (弘益人間이라는 한자어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민중의식 속에 집단무의식으로 전승되어 오면서 고비마다 표출되고 역사에 개입하였다. 1920년대에 재발견되어 교육이념으로까지 자리잡은 것은 이같은 집단무의식이 현재화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를 홍익인간이라는 집단무의식이 전개되어온 과정 (그것이 추구되고 억압되며

같은 초기 국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홍익인간이 단군신화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의 신민족주의 이론가들에 와서라 할 수 있다. 그 주역은 조소앙과 안재홍·정인보 등의 국학자들이다. 이들이 씨름한 사상적 과제는 좌우익으로 분열된 민족사회를 통합할 중심이론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중심이론은 외래의 사상·관념을 무비판적으로 채택한 것이어서는 안되고 민족사와 그 유산 속에서 찾아진 것이어야 했다. 연구자들은 민족적 전통유산에 기초하되 민주주의와 평등 사상을 함께 고취하고 인류평화와 복지라는 보편적 대의로까지 연결 지을 수 있는 고유의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였으며, 그런 관심하에 단군신화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익인간이라는 고유의 관념이 다시 발견되게 된 것이다. 이들 신민족주의 이론가들에 와서 홍익인간은 민족적 건국이념이자 이상으로 정립되었다. 그리고 삼균주의나 신민족주의 같은 통일지향 정치이론의 기초가 되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영입되기에 이르렀다.<sup>16)</sup>

### Ⅲ. ‘홍익’의 의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 먼저 해야 할 것은 한자로 번역된 자의를 살피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전진하고 후퇴한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도 뒤따를 필요가 있다.

16) 홍익인간이 재발견되어 교육이념으로 영입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영훈, 「홍익인간의 유래와 현대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7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정영훈, 「조소앙의 신민족주의 정치이론과 단군민족주의」, 『한민족연구』 3호, 한민족학회, 2007 ; 정영훈,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정치이론과 단군민족주의」, 『한민족연구』 5호, 2008 을 참고할 것.

라 번역하는<sup>17)</sup> 기왕의 해석은 본래의 자의상 의미 전반을 드러내주지 않는 것 같다. 특히 ‘弘’에 대한 해석에서 그러하다. 여기서는 한자의 뜻과 신화속 문맥상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홍익인간의 취지를 천착해보고자 한다.

홍익인간은 일단 [홍익+인간]으로 분리하여 의미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홍익인간은 “인간을 홍익하라”는 구조로 되어있는 바, 여기에서 인간은 홍익이라는 행위나 조치의 대상이자 목적인 셈이다. ‘홍익’은 다시 ‘홍’과 ‘익’을 나누어서 살펴야 한다. ‘홍’은 ‘익’이라는 행위나 조치의 방향 또는 양상을 수식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먼저 ‘홍’에 대해 살펴보면, 그에 대한 일반적 번역은 ‘널리’이다. 이 ‘널리’의 사전상 의미는 (1) ‘넓게’와 (2) ‘너그럽게’이다.<sup>18)</sup> 그리고 이같은 ‘널리’의 의미는 조소앙이 삼균주의론에서 자주 강조한 평등과 균등의 뜻으로 연결되어 가기 쉽다. ‘널리’라는 용어에는, 어떤 것이 좁은 범위에 편중되거나 한쪽에 독점되지 않고 고르게 펼쳐져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동반되어 있고, 나아가 ‘너그럽고 관대하다’는 이미지도 수반되어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규모나 정도가 크다’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한자 자전들에서 보이는 ‘홍’에 대한 일반적인 훈독은 통상 ‘클 홍’(大也) 또는 ‘크게 할 홍’(大之)으로 되

17) 가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세계철학대사전』(교육출판공사, 1980) [홍익인간] 항에서의 해석이 그러하다.

18) ‘널리’에 대한 이같은 해석은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어문각, 1991)에서 제기한 해석으로, 일반적으로 동의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나온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에서도 ‘(1) 범위가 넓게’와 ‘(2) 너그럽게’의 두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참고로 ‘넓다’에 대한 『우리말큰사전』의 해석은 “(1) 면이나 바닥 따위가 크다, (2) 너비(폭)가 길다, (3) 마음 씩씩이가 크다, (4) 내용 범위가 크다”인데, ‘널리’는 ‘넓다’의 부사형인 셈이다.

어있다는 점이다.<sup>19)</sup> 이때 ‘크다’는 말의 1차적 의미는 어떤 것의 규모가 기준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sup>20)</sup> 그리고 ‘크다’의 이같은 일차적 의미는 (한쪽에 좁게 편중되거나 독점되어 있는 상태의 반대 개념이라 할) ‘널리’와는 자못 다르다. ‘크다’의 1차적 의미는 규모가 작고 부족한 것에 대한 상대개념이고, 펼쳐져있는 양상보다는 전체적인 총량의 크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가 ‘홍’을 ‘클 홍’으로 새기는 일반적 용례를 적용하여 홍익인간을 번역한다면,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하라(유익하게 하라, 도와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번역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이다. 그러면 어떤 경위로 “널리 인간을 ...”이라는 번역이 일반적 번역으로 정착했을까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홍익인간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로 번역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

- 19) 대부분의 한자사전이 이같이 해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15세기 이래 각종 문헌에서의 용례에 기초하여 편찬한 남광우 편, 『古今漢韓大辭典』(인하대출판부, 1999)에서도 ‘홍’을 ‘클 홍’ (大·大之·畝容) 으로 해석하고 있다. 20세기 초에 편찬된 『신정증보 신옥편』(예수교서회 간, 1911)과 『漢朝文新玉篇』(1913)에서도 ‘클 홍’으로 혼동되고 있으며, 근래에 편찬된 대부분의 사전도 같다. (장삼식 『大漢韓辭典』, 진현서관, 1981 ; 이가원·장삼식 공편, 『詳解한자대전』, 한영출판사, 1972 ; 『삼성대옥편』, 삼성문화사, 1990 ; 강석진 외, 『진명 중한사전』, 진명출판사, 1996 등 참조) ‘홍’에 대해 ‘넓을 홍’의 해석도 붙인 단하나의 사례는 민중서관 편 『한한대사전』(1966)이다. 이 사전에서는 ‘홍’에 대해 [(1) 활소리 홍, (2) 넓을 홍, 클 홍, (3) 넓힐 홍, 넓게 할 홍]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弘’이 사용되는 용례를 고려하여 그 의미를 헤아려보면 ‘홍’에는 (1) 범위·규모·정도 면에서 크다는 의미와, (2) 넓다는 의미, (3) 관대하다는 의미 등 3가지가 동반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0) ‘크다’의 사전상 의미는 [(1) 부피·넓이·길이 따위가 기준이상이다, (2) 규모·범위·정도 따위가 대단하다]이다.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1. ‘크다’에 대한 해석은 남한과 북한의 사전들에서 차이가 없다 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해석의 연장선 상에서 ‘크다’라는 말은 관대하다-너그럽다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로써 보면 ‘크다’의 의미 속에는 ‘넓다’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필자는 홍익인간을 발견한 1920년대 사상가와 연구자들 사이에 홍익인간을 그같은 방향에서 해석해간 인물이 있고 그같은 해석을 대중이 뒤따른 것일 것이라 추정한다. 필자는 특히 삼균주의를 창시한 조소앙을 주목한다. 조소앙은 삼일운동후 사회주의가 유입되면서 민족사회가 좌우익으로 분열되자 그같은 분열을 통합하여 통일된 민족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정치이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홍익인간을 그 사상적 출발점에 위치시켰었다. 그가 기초한 문건들을 인용해보자.

“당의의 중심사상은 평등이다. 우리 선철이 말하였으되 “首尾均平位하여 興邦保泰平함이 弘益人間하고 理化世界하는 最高公理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머리와 꼬리(상하라고도 할수 있다)의 위치를 고르게 함으로써 나라를 흥왕케하며 태평을 보전함이 널리 인간을 유익케하며 세계를 진리로써 화하는 가장 높은 공리라 함이다.”<sup>21)</sup>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이 명명한 바 首尾均平位하면 興邦保泰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계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며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라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민족이 지킬 바 최고공리임”<sup>22)</sup>

조소앙은 우리민족의 행복과 전인류의 행복을 실현함에 있어 “유일절대적 기초가 되는 것”이 ‘균등’이라 보았으며, 한국독립당의 중심사상은 이 균등이라 천명하였다.<sup>23)</sup>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이자 “우리민족이 지킬 바 최고공리”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취지를 이 평등-균등의 정신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홍익인간을

21) [한국독립당당해석], 『소앙선생문집』 상, 206쪽.

22) [대한민국건국강령], 『소앙선생문집』 상, 148쪽.

23) [한국독립당의 당해석], 『소앙선생문집』 상, 207쪽.

“널리 인간을 유익케함”으로 번역한 것은 이같은 의도나 이해방식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 ‘널리’는 ‘너그러움’으로, ‘너그러움’은 ‘평등’으로 나아간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소앙의 이같은 해석방식은 해방후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평등과 공동체의식이 중시되던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 속에) 받아들여 졌으며, 국민의식 속에 대중화되기에 이른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널리’로의 ‘홍’과 ‘크게’로의 ‘홍’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다른 지향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점이다. 곧, ‘크다’는 말은 규모나 수량면에서 정도이상이라는 의미로서 성장이나 생산성·효율성·경쟁력 등을 우선시하는 관점으로 연결되지만, ‘널리’는 말은 관대하고 너그럽다는(관용) 의미의 연장선 상에서 연대성이나 평등-분배를 중시하는 정책노선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성장과 생산성은 자유주의의 사회원리와, 평등-분배는 공동체주의(사회주의)의 기본지향과 각각 친화력을 가지는 가치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자유에서 찾고 이기심과 이윤동기를 발전의 동력으로 상정하지만, 공동체주의는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라 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타심과 선의지를 발전의 동력으로 상정한다.

필자는 ‘홍’을 ‘넓게’와 ‘크게’ 중 어느 하나로만 해석하는 것은 홍익인간 사상의 본래의미를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두 방향으로의 해석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천적으로 볼 때는, 두 방향의 가치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는 (크면서 동시에 넓은 행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는 것이 홍익인간 사상의 핵심적 지향이라고 판단한다. 물량적으로 풍요로우면서 고르게 행복을 누리는 상태 또는 그러한 세상이 홍익인간사상의 지향점이라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같이 볼 수 있다면,

‘홍’은 성장(발전)과 복지(통합)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향을 갖는 말이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책지향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또 ‘홍’을 그렇게 해석하면 홍익인간의 본뜻은 크면서도 넓은 (풍요로우면서도 평등한) 행복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홍’에 대한 번역을 ‘크게’와 ‘널리’ 중에서 택해야 한다면, ‘널리’보다는 ‘크게’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홍’은 크면서도 넓은 상태를 추구하는데, ‘크게’에는 ‘널리’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널리’에는 ‘크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크면서도 넓은’ 상태로의 ‘홍’에 대한 번역어는 ‘널리’보다는 ‘크게’가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sup>24)</sup>

‘홍’의 의미가 좀 복잡한 것과 비교하면 ‘익’에 대한 해석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홍익인간의 ‘益’은 ‘돕는다’·‘이롭게 한다’·‘더한다’의 의미로 새겨진다.<sup>25)</sup> 그중에 더 많이 통용되는 것은 ‘이

24) ‘크다’의 일차적 의미는 크기나 범위 등이 정도 이상이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의미로부터 ‘너그럽다(관대하다)’는 의미도 파생되어 동반되고 있다. ‘크게’로 ‘널리’의 의미까지 함축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널리’에는 ‘너그럽다’는 의미는 있지만 ‘크기가 크다’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써 보면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보다는 “크게 사람을 이롭게 하라”로 해석하는 것이 전체 의미를 포괄하는 해석일 수 있겠다.

25) 15세기 이래 각종 문헌에서의 용례에 기초하여 편찬한 남광우 편 『古今漢韓大辭典』(1999)에서는 ‘益’을 (1) 더할 익 (增·加), (2) 나아갈 익 (進), (3) 넉넉할 익 (饒), (4) 많을 익 (多), (5) 넘칠 익 (盈溢), (6) 패 익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익’에 대한 대부분의 사전들이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민중서림 편 『한한대사전』(1997)에서는 (1) 더할 익, (2) 더해질 익, (3) 이로울 익, (4) 많을 익, 넉넉할 익, (5) 이익 익, (6) 더욱 익, (7) 패 익 등 현대적 의미를 더크게 반영하여 해석해주고 있어 주목된다. ‘익’에 대한 전통시대의 해석에서는 增·加·進·饒·多·盈溢 등의 의미가 우선이었고 주로 ‘더할 익’으로 읽어왔는데, ‘더한다’거나 ‘넉넉하다’는 의미의 연장선 상에서 ‘이롭게 한다’거나 ‘돕는다’는 의미로 발전해갔다 할 수 있다.

롭게 한다'인데, 논자들 중에는 현실주의적(세속적) '이익'의 개념이 연상되는 '이롭게 한다'로의 해석은 홍익인간의 본래적 지향을 어지럽힌다고 보고, '돕는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홍익인간을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sup>26)</sup> 그러나 '인간을 돕는다'로 새기더라도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기존의 해석과 의미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굳이 말한다면, '익'을 '이롭게 한다'로 할지 '돕는다'로 할지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차이보다는, '홍'을 '크다'로 할지 '넓다'로 할지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차이가 더 크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sup>27)</sup>

'益'(도와줌·이롭게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나 활동인지에 대해서까지 신화가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화의 문맥에서 보면, 신사에서 처결된 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악 등 인간세상 360여가지 업무는 인간을 도와주기 위한 구체적인 사무이자 활동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어떤 내용의 사무인지에 대한 것도 역시 한자로 번역된 바를 통하여 일정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가령 '주곡'은 먹고사는 일, 배고픔을 해소하는 일일 것이다. 폭넓게는 의식주의 문제를 포괄하였

26) 최봉영,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대한 검토」, 『인격교육』 제1권 1호, 한국인격교육학회, 2007.

27) 최봉영교수는 '익'을 '도울 익'으로 해석하고, '돕는다'의 본래적 의미는 '되게 한다'거나 '답게 한다'는 뜻으로서, 어떤 것이 본래의 속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 (최봉영, 위의 논문) 그런데 '돕는다'는 말의 고유 의미를 최교수처럼 '되게 한다'거나 '답게 한다'로 해석하면, 홍익인간은 교육의 기능이나 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풍부하고 심오한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익'은 '되게 한다'거나 '답게 한다' 보다는, '더 한다' -> 돕는다 -> 이롭게 한다라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한자로 번역되기 이전의 단군신화에 포함된 아이디어가 '되게 한다'거나 '답게 한다'였다면, '益'이 아닌 다른 한자어로 번역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은 추후 연관된 고유어의 본래의미와 '홍익'이라는 한자어의 용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기초하여 재론되어야 할 것이다.

을 수도 있다. ‘주병’은 질병을 치유하는 일이고 보건·환경 등의 업무였을 것이다. 질병은 불교가 말한 4가지 고통의 하나인 바,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모든 인간의 소망이다. ‘주형’은 범죄를 단속하는 것, 곧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을 것이다. 개인들의 과도한 탐욕과 일탈행동 및 부정부패가 사회의 평화를 깨고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주형의 중요성도 인정된다. ‘주선악’은 사회를 도덕적으로 통합하는 교육기능이었을 것이다. 국가사회의 통합과 발전은 결국 국가사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도덕적 측면이 특히 중요함을 파악했을 것이다. ‘주명’이 어떤 업무인지는 불확실하다.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여 관료조직을 지도하는 기능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인간의 수명연장 욕구에 부응하는 기능이라 보는 견해도 가능하다.<sup>28)</sup> 그러나 어느 것이든 인간을 도와주는 일이며 인간사의 중요업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롭게 한다]거나 [돕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행복하게 해준다], [행복해지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로 새겨도 될 것이다.

28) ‘주명’이 어떤 직능이나 기능을 담당하는지는 불확실하다. 혹자는 임금의 명령을 출납하거나 행정조직을 관리하는 기능 또는 관직이라 설명하기도 하지만, 인간생명의 기본요소인 목숨-기운을 주관하는 기능으로도 해석해줄 수도 있다고 본다. 단군신화를 도교-선교적(신선사상) 관점에서 읽으면 주명은 목숨-기운과 관련된 기능이자, 수명-기운-생명에너지를 키워서 불로장생하는 과제에 봉사하는 기능-관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선사상의 핵심적 관심사는 불로장생이며, ‘주명’은 이러한 관심사와 관련된 설정이라 볼 수 있다. 또 전통사상 속에서 목숨(기운줄)을 주관하는 존재로 설정되어온 삼신할머니에 해당하는 역할로도 이해할 수 있다. 단군신화에서 단군이 죽지않고 산신으로 은퇴하였다 한 구절이나, 단군을 선인으로 묘사한 사료속의 구절들, 풍백·우사·운사 등이 도교쪽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라는 점 등은 단군신화가 도교-선교적 문화와 연계 깊음을 보여주며, ‘주명’을 불로장생사상 같은 선가적 관심사와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이같은 의미의 ‘익’ 개념은 우선 남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고 억압하는 태도를 거부한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도 ‘익’과 대립한다. 그리고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하거나 부적절한 상태에 방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홍익인간은 인간을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그렇게 행동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이다. 홍익인간은 인간과 인간의 행복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시하는 사상이다. 모든 것은 인간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행복의 내용은 상황마다 다를 것이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시대상황과 인간상황에 따라 행복의 내용은 달리 규정되고 내용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배고픔이 인간을 괴롭힐 때는 주름을 면하게 하는 것이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는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며, 범죄가 난무하여 사회가 불안할 때는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기심과 탐욕이 넘쳐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는 사회적 윤리와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홍익인간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명제이다.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상황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는 명제이기도 하다. ‘익’의 의미는 그러한 것이라 본다. 환인이 환웅에게 물었던 [下至三危太白 弘益人間歟](삼위태백에 내려가서 홍익인간해보겠는가? / 『제왕운기』)의 본래 의미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런 의지가 있는가, 방법을 알고있는가를 묻고 다짐받은 것이었다.

#### IV. ‘인간’은 누구인가

그러면 홍익인간의 ‘인간’은 누구인가.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

는 대상은 누구인가. ‘홍익’ 행위의 대상이자 목적인 ‘인간’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한 그 동안의 일반적 해석은, ‘인간세상’이나 ‘공동체’(Human society, Community)로 보는 것이었다. 특히 오늘날 의미로의 ‘사람’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할 수 있다.<sup>29)</sup>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홍익의 대상으로의 ‘인간’은 (1) 공동체나 인간사회로만이 아니라, (2) 신이나 동물과 구분되면서 제약된 생을 살아가는 현존재로의 인간이기도 하고, (3) 지배층-통치자에 대립한 개념인 피지배층(백성)이기도 하며, (4) ‘나’·‘자아’와 대립되는 존재로의 남과 이웃이기도 하다고 본다.

홍익인간의 ‘인간’은 물론 사람들이 모여사는 인간세상 또는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 ‘人間’은 사람 ‘人’과, 사이 또는 관계를 의미하는 ‘間’을 결합한 말이므로, 일단 인간사회-인간세상이나 공동체로 해석하는 것이 순리적이다. 또 전통시대의 ‘인간’ 개념은 사람이 아닌 인간세상을 가리켰다는 지적도 있다.<sup>30)</sup> 이때의 ‘인간’은 우

29) 가령 권성아박사는 홍익인간의 인간을, 개인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의 인간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권성아, 「홍익인간이념의 교육적 해석」, 정영훈 외 공저, 『홍익인간 이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02쪽) 이같은 해석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30) 서영대교수는 <삼국유사>에 ‘인간’이라는 말이 10회 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용례는 ‘인간세상’이나 ‘사람들 사이’의 의미라 지적한 바 있다. (<고조선 단군학회 65회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122쪽, 2016.5.28., 동국대 중앙도서관) 그러나 필자는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인간’이라는 말을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말하자면 한국지성사의 어느 시점부터 ‘인간’을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얘기이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였을까? 필자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가 저술되던 무렵에도 ‘인간’이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을 것이라 본다. 단군신화 속 ‘홍익인간’의 ‘인간’은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인간’ 용어의 의미를 추적해보면 조선 초기에도 ‘인간’이라는 말을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 사적 욕구와 취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의 개인에 대한 상대개념일 것이다. 인간세상-공동체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단순한 개인들의 총합에 그치지 않고, 전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입장을 대변하고 구현하는 사회적·도덕적 실체로의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공동체로의 ‘인간’을 봉사대상으로 상정하는 홍익인간사상은 기본적으로, 개인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는 사상으로서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개인의 자유보다는 평등, 권리(right)보다는 책임(responsibility), 가치에 대한 중립적 방입보다는 정의나 선에 대한 적극적 실천을 중시한다. 오늘날의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의 확장과 산업화 진전에 따라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회적 윤리가 와해되며, 개인이 원자화되고 소외감이 확대되는 현상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였다. 공동체주의는 이기적 개인들의 자유경쟁을 정당화하고 악육강식·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을 당연시하는 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에 반대한다. 인도적 동포애와 연대성을 강화하여 통합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며, 개개인들이 공동체의식으로 참여하고 결속할 수 있는 체제와 제도 및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홍익인간사상이 현대 공동체이론과 일치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향에서의 유사성은 분명해 보인다.

이상에서는 홍익인간의 ‘인간’을 공동체나 인간세상으로 보는 기존의 해석을 부연설명하였는데, 그러나 홍익인간의 인간은 현대어로의 사람이나 인간(Human being, Human beings)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다고 봐야한다. 홍익인간의 ‘인간’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단군신화의 문맥상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군신화에서의 인간은 ‘凡主人間三白六十餘事’와 ‘주곡·주명·주병·주선

악·주형’ 등 이른바 五事의 수혜자이자 배려대상이었다. ‘주곡·주명·주병·주선악·주형’ 등의 사회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얘기는, 곡·명·병·선악·형 등의 사안들과 씨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단군신화 속의 인간은 (홍익 행위의 대상이 되는 인간은) 말하자면, 먹고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선악의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죄를 짓고 형벌을 받기도 하는 존재이자, 한정된 시공간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바로 현존재로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만약 단군신화를 번역한 사람이 ‘인간세상’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용어를 찾았다면 ‘인간’보다는 ‘인세’가 선택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단군신화 속에는 ‘人’이 포함된 표현이 ‘인간’ 외에도 여러 용례에서 찾아진다. ‘人世’와 ‘人·人形·人身’등이 그것이다. 그중에 특히 ‘탐구인세’에 나오는 ‘인세’는 인간으로 구성된 세상·사회·공동체로의 인간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번역자가 인간세상을 의미하는 용어를 찾았다면, ‘인간’이라 할 것이 아니라 이 ‘인세’를 취하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번역자는 ‘홍익인세’라 번역하지 않고, ‘홍익인간’이라 번역하였다. 번역자는 아마도 홍익의 대상이 (인간세상만이 아니라)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점을 의식했을 것이고, 그리하여 홍익인간이라 번역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홍익의 대상으로의 ‘인간’은 집합개념으로의 공동체나 전체(집단)으로의 인간사회가 아니라 구체적 존재로의 인간-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홍익인간의 ‘인간’은, 한정된 시공간 속에서 운명과 싸우고 환경조건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구체적 존재로의 현존재(Dasein)로의 사람이기도 했다. 그것은 우선 신이나 동물 및 자연과 구분되는 존재이다.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범죄나 무질서로부터 시달리며, 선과 악 사이에서 번민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홍익인간의 ‘인간’은 인간을 구속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대상들과 대립하는 개념이다. 가령 인간사회를 규제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교육·법률·언론·학문·기술 ... 등 제 방면의 모든 문명장치들이 ‘인간’과 대립한다. 보이지 않는 이념이나 가치관도, 권력이나 국가도, 돈이나 재물도, 그가 유통되는 시장도 ‘인간’에 대한 대립항에 포함된다. 이들 대립항에 있는 존재들은 인간행복을 위한 것인 양 표방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지배하고 수단시하며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일 수도 있다. 홍익인간은 이들 제반 문명장치들에 대해 인간의 행복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익인간을, 인간을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현대 세계의 비인간적 상황들을 비판하고 교정하는 기준가치이자 원리로 설정하고자 하는 제안들이 타당한 것은 홍익인간의 ‘인간’이 Human being으로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홍익인간의 ‘인간’은 정치·사회적으로 보면 왕이나 특권계급이 아닌 피치자·백성·민중·대중을 특히 가리킨다 할 수 있다. 이같이 볼 수 있는 근거는 신화속에서 홍익인간이 출현하는 맥락에서 찾아진다. 단군신화 속의 홍익인간은 환웅이 신시를 열고 인간세상 360여사를 관장하는 활동으로 실천되며 구체화된다. 그런데 신사에서 환웅이 행한 조치·활동이 홍익인간을 실천한 활동이었음을 인정한다면, 홍익행위의 대상인 ‘인간’은 신사에서 환웅의 다스림을 받던 피치자·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라 봐야 할 것이다. 이때 환웅은 통치자이고 풍백·운사·우사는 통치자를 보좌하던 관료 또는 지배층들이다. 단군신화에서의 ‘인간’은 환웅이라는 통치자와 풍백·우사·운사·주곡·주명... 등 관리계급 또는 국가기능의 보살핌과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며, 재세이화라는 권력작용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홍익인간의 ‘인간’을 이같이 파악한다면, 홍익인간사상은 백성, 곧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명령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가나 권력의 목적이나 의무, 또는 존재이유는 홍익인간에 있다는 얘기이다. 국가나 권력은 통치자의 이익이나 취향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소수의 특권계급을 위해 존재해서도 안되는 것이었다. 홍익인간은 국가와 권력의 존재이유와 활동목적을 적시한 것이었다. 그것은 백성을 행복하게 하라는 위민사상이자 민본사상이었던 것이다.

홍익인간사상은 특히 피치자-백성-민중을 향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특히 통치자들에게 부과되어 있다. 홍익인간의 인간은 바로, 지배당하고 통치받는 존재, 곧 백성 또는 민중으로의 인간이며, 홍익인간은 통치자나 국가지도층에게 행동원칙으로 부과된 덕목이었다.<sup>31)</sup> 그런데 이 측면은 기왕의 홍익인간 이해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홍익인간은 그동안 전체 민족 구성원들에게 부과된 명제나 도덕률로서 막연하게 거론되어져 왔다. 그러나 신화속의 홍익인간은 국가나 권력의 사명과 존재이유에 대한 언명이면서 지도층이 가져야 하는 자세나 역할에 대해 언급한 것이었다. 홍익인간은 국가나 권력의 목적이며, 그를 먼저 실천해야 할 사람들은 지배층-지도층이었던 것이다. 홍익인간은 국가가 인간을 위한 기관인지 반성하게 하는 명제였다. 건국이념으로의 홍익인간은 이점을 강조하여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홍익인간의 ‘인간’은 또 인식주체이자 욕망주체인 ‘나’(I, Self, Ego)와 대비되는 존재로의 ‘남’(타자, 이웃)이기도 하다. 홍익인간을 공동

31) 이 대목에 대한 해석을 좀더 확대한다면 홍익인간은 고대인이 생각한 지도층의 도덕적 덕성, 곧 ‘노블레스오블리주’였다고 볼 수도 있다. 노블레스오블리주에 대한 고조선인들의 생각을 표현한 명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체 구성원들 사이의 윤리규범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는 이같은 인간이해에 기초한다. 단군신화에서 홍익인간은 환웅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되었다. 홍익인간이라는 명제는 인식주체나 행위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곧 행위자인 환웅이나 관료집단-지배층은 고려하지 않고) 대상인 ‘인간’을 위한 일방적 봉사를 명령한다. 홍익인간이 제기되고 실천되는 과정에 (실천자와 대상-수혜자 사이에) 상호성이나 보상에 대한 고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보상없는 일방적인 홍익행위가 촉구되었을 뿐이다.

여기에서 행위주체-인식주체로의 환웅과 그 대상으로의 ‘인간’은 ‘나’와 ‘남’으로 전환하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환웅에게 인간은 ‘남’이었다. 홍익인간은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이나 지침으로의 성격 외에, 신시라는 인간세상에서 구현-실천해야 하는 이상적 사회상이나 질서-규범으로 제시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홍익인간을 실천해야 하는 행위자는 환웅만이 아니라 신시의 구성원 모두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홍익인간의 지침은 남-이웃-공동체를 향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일방적인 배려와 봉사 및 헌신을 촉구하는 데 특징이 있다. 윤리규범으로의 홍익인간은 상호적이고 보상을 기대하는 소극적 윤리가 아니라 일방적인 봉사와 헌신으로의 적극적 윤리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sup>32)</sup>

32) 여기에서 소극적 윤리란 (善行에 대한 보상이 기대되는) 상호주의적-상호공존적 행위규범을, 적극적 윤리란 보상이나 상호성이 배제된 일방적 봉사와 헌신을 지향하는 덕목을 가리킨다. 전자는 준법정신이나 신용·정직·성실·언행일치·협동·관용·공감·참여 같은 덕목이, 후자는 나눔과 베품, 선공후사, 솔선수범 등과 같은 덕목이 해당된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사회적 평화와 협조관계는 전자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지만, 전자(소극적 덕성)만으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높은 단계의 관계로까지는 진전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극적 덕을 넘어 적극적 덕이 실천될 필요가 있다. 윤리규범으로의 홍익인간은 소극적 덕을 넘

여기에서 하나 더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홍익인간의 ‘인간’을 인간과 자연까지를 망라한 개념으로의 ‘누리’로 확대해석하는 견해에 대한 것이다.<sup>33)</sup>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을 ‘누리’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 생각한다. 홍익인간을 자연만물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이념이라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단군신화는 인본주의 또는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으로 일관되어 있다. 가령 환웅이 굳이 ‘탐구인세’라 하여 천하와 지상에 뜻을 둔 것은 거기에 사람-인간이 있기 때문이었으며, 그가 신사에서 처결한 곡·명·병·선악·형 등의 일들 역시 인간사회의 복지 및 질서에 관계되는 일들이었던 것이다. 신화내용을 두고 볼 때 홍익인간관념은 우선 인간-사람과 사회-공동체의 행복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자연만물은 인간의 복지와 행복에 도움되는 범위 안에서 의미부여되고 있다. 물론 그것은 단기적인 인간중심주의에 빠진 정복적 자연관이나 찰라적 현세주의는 아니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공존적인 자연관일 것이다. 홍익인간 사상의 핵심은 인간의 행복을 최상의 목표가치로 간주하고, 모든 것은 그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보는 생각일 것이다.

## V. 맺음말

이 논문은 홍익인간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서는, 한자로 표기된 글

어 적극적 덕을 실천할 것으로 촉구한다.

33) 가령 김인회교수는 개국이념으로의 홍익인간은 원래 사람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개념이었지 결코 사람중심의 개념이 아니었던 것인데, 교육이념으로 채택될 때 사람 위주의 인간중심주의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인회, 「21세기 한국교육과 홍익인간교육이념」, 『정신문화연구』 7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47쪽)

자뭇과 신화 속에서 그것이 출현한 맥락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신화속의 홍익인간은 천신 환인과 그 아들 환웅이 인간세상에 대해 갖고있던 이상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고대 한국인이 국가와 세상에 대해 갖고있던 생각을 천명한 말이었을 것이다. 그같은 내용은 아마도 고조선 시기에 단군신화가 만들어질 때부터 신화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단군신화는 문자가 없는 조건 속에서 오랫동안 구전되어 왔을 것이고, 한자가 유입된 후 역사서를 편찬할 때, 한자로 번역되어 역사서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홍익인간 역시 단군신화가 한자로 번역될 때 함께 번역되어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단군신화를 한자로 번역한 사람은 단군신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와 세상에 대한 고대인의 관념을 어떻게 번역할지를 두고 고민했을 것이다. 특히 불교 경전류에 나오는 ‘홍익중생’ 등의 표현을 두고 그 적절성을 검토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식의 ‘홍익중생’으로는 고유의 관념을 제대로 번역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고유의 관념에서는 ‘홍익’의 대상이 ‘중생’이 아닌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홍익인간’은 인간중심주의와 현세중심주의로 일관하는 단군신화의 세계관을 고려한 번역어로서 선택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홍익인간은 불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고유의 사상이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논문에서는 ‘弘益人間’을 [弘益+人間]의 구조로 분해하고, 다시 [弘+益+人間]으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천착하였다. 필자는 먼저 ‘홍’에 대한 일반적 훈독이 ‘크 흥’임을 지적하고, 홍익인간 해석에서도 ‘널리’보다는 ‘크게’로 읽어줘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홍’의 제대로 된 뜻은 ‘크면서 넓은 것’인 바, ‘널리’에는 ‘크다’는 의미가 제외되어 있지만, ‘크게’에는 ‘넓다’는 의미가 동반되어 있음을 유념한 것

이다. ‘익’은 ‘더한다’거나 ‘돕는다’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 그 핵심취지라 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공동체’나 ‘인간세상’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 외에 ‘사람’이라는 뜻과 ‘백성’이라는 뜻, ‘남’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논문에서는 그같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도 제시하였는데, ‘인간’이 이같이 다각도로 해석됨으로써 홍익인간의 내용이 한결 풍성해진다 하겠다. 홍익인간은 우선은 국가와 권력의 존재이유와 방향을 제시하는 건국이념이었지만, 인류사회를 규제하는 문명장치들의 사명에 대해 규정하는 명제이기도 하며, 인간사회를 정화하고 결속시키는 공동체윤리를 천명하는 것이기도 했던 것이다. 논문에서 전개한 홍익인간에 대한 자의해석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弘益人間’의 글자 풀이]<sup>34)</sup>

弘益人間 = 弘益+人間 = 弘+益+人間

弘 : ① ‘크다’ (수량이나 규모가 많은 모습) → 성장·생산성·경쟁력·자유  
→ 자유주의

↔ 작음·부족함·가난.

② ‘넓다’ (너그럽고 포용적인 모습) → 평등·배려·분배·복지  
→ 공동체주의

↔ 편중·독점·편파성.

益 : 더한다. 돕는다. 이롭게 한다 → 행복하게 한다.

비상호적 헌신의 윤리. 복지국가

↔ 빼앗음·억압·방해·방관.

人間 : 人 (사람) + 間 (사이. 관계)

① 인간세상·공동체 (Human society, Community) ↔ 개인.

→ 공동체주의 (인간을 위한 공동체를 추구)

- ② 사람(들) (Human being(s))
  - ↔ 신·동물·자연·돈(물질)·권력(국가)·시장·체제·구조.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장·법률·언론·종교·교육·과학기술 등 모든 문명장치는 인간을 위한 도구여야 함.
- ③ 백성, 피치자, 인민, 민중 (People, Populace) ↔ 국가·통치자·지배층.
  - 민본주의·위민정치 → 민주주의·복지국가
- ④ 타인 ↔ 나·자아·ego.
  - 적극적 윤리

홍익인간의 글자풀이를 이상과 같이 한다면 전체로의 홍익인간이 지향하는 바 사상과 가치관은 인간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의미의 ‘인본주의’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홍익인간이 지향하는 인본주의가 세상사의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어떤 관점과 기준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더 열어놓고 탐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면상의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길게 논의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간추려 제시한다면, (1) 홍익인간이 추구하는 인본주의는 무엇보다 먼저 국가와 권력의 존재이유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데에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과, (2) 정치·경제·사회·문화·시장·법률·언론·종교·교육·과학기술 등 인간 세계를 규제하는 모든 문명장치들 역시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인간행복에 봉사해야 한다고 천명한다는 점, (3) 홍익인간은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 (4) 홍익인간은 반대급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적극적 윤리를 강조한다는 점, (5) 홍익인간은 1차적으로는 통치자와 권력자에게 노블레스오블리주로 제시되고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 모두

34) 이 표는 이미 발표한 필자의 논문 「건국이념 홍익인간이 추구하는 세상과 삶」(『한민족연구』 14집, 2014, 87쪽)에 수록된 것을 보완한 것이다.

에 대한 윤리적 지침으로 확장돼간다는 점, (6) 홍익인간은 내세 아닌 현세에서의 복지와 정의를 추구한다는 점 등이 특히 주목된다 하겠다.

홍익인간은 한민족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이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환웅이 신시를 건설한 목적이었고, 단군이 조선을 건국함에 있어서도 그 이념이 계승되었으리라 상정되기 때문이다. 홍익인간이 현대 한국의 정치와 교육을 규율하는 기초원리로서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일 것이다. 제시하는 바가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도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홍익인간은 여전히 교육이념의 지위를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교육과 정치를 반성하고 세상사와 사회의 건강성을 비판하고 점검하는 가치이자 이념으로 자주 호명될 것이라 생각된다. 인간존중에 토대된 평화롭게 통합된 인류사회를 향한 미래적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서도 홍익인간은 그 논의의 출발점이자 기준가치로서 유의미하다. 홍익인간사상은 인류의 문명과 삶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와 권력에 대하여, 그것이 진정 인간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 투고일자 : 05. 10      심사일자 : 05. 29      게재확정일자 : 06. 05

## 〈참고문헌〉

<삼국유사>, <제왕운기>, <규원사화>,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응제시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육당최남선전집』, 현암사, 1974

김경동, 『인간주의사회학』, 민음사, 1978.

김구, 『백범일지』, 청목, 1994.

단체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편, 『단체신채호 전집』, 형설출판사, 1977.

대종교총본사, 『역해종경사부합편』.

권성아, 「홍익인간이념의 교육적 해석」, 『홍익인간 이념연구』(정영훈 외 공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김인희, 「21세기 한국교육과 홍익인간교육이념」, 『정신문화연구』 7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정영훈 외, 『홍익인간사상의 인문학과 창조경제 발전모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정영훈 외 공저, 『홍익인간 이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정인보, 『담원정인보전집』, 연세대출판부, 1983.

한기연, 『한국교육이념의 연구』, 태극문화사, 19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0.

조소앙, 『소앙선생문집』, 햇불사, 1979.

편집부, 『세계철학대사전』, 교육출판공사, 1980.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1.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1992.

이가원·장삼식편, 『詳解 漢字大典』, 한영출판사, 1972.

장삼식 편, 『大漢韓辭典』, 진현서관, 1981.

남광우 편, 『고금한한사전』, 인하대출판부, 1999.

삼성문화사 편, 『삼성대옥편』, 1990.

강석진 외, 『진명 중한사전』, 진명출판사, 1996.

예수교서회 편, 『신정증보 신옥편』, 1911(명치14).

민중서관 편, 『한한대사전』, 1966.

- 민영규, 「용제 선생과 홍익인간의 문제」, 『백낙준박사기념강좌』, 대한기독교서회, 1992.
- 박선영, 「한국교육사에 있어서 불교사상」, 『한국교육사학』2, 1978.
- 유영인, 「홍익인간의 종교적 고찰」, 한민족공동체연구소 제12차세미나 (대주제: [한국의 고대사 그리고 비교공공성],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8.20.) 발표논문.
- 이계학, 「단군신화의 교육학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1986년 봄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정구복, 『한국중세사학사』(1), 집문당, 1999.
- 정연식, 『상고대 조선의 정치이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 정영훈, 「홍익인간의 유래와 현대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7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정영훈, 「조소앙의 신민족주의 정치이론과 단군민족주의」, 『한민족연구』 3호, 한민족학회, 2007.
- 정영훈,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정치이론과 단군민족주의」, 『한민족연구』 5호, 2008.
- 정영훈, 「건국이념 홍익인간이 추구하는 세상과 삶」 『한민족연구』 14집, 2014.
- 조경철, 「홍익인간의 인간관과 사회통합」, 한민족공동체연구소 15차포럼 발표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12.5.
- 조홍윤, 「홍익인간 사상의 연원과 의미」, 『한국문화론』, 동문선, 2001.
- 최봉영,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대한 검토」, 『인격교육』 제1권 1호, 한국인격교육학회, 2007.

[홍익인간법제화논란], <한국대학신문> 2000년 5월22일자 ;

<http://www.unn.net/ColumnIssue/detail.asp?nsCode=42347&sCode=1&cIdx=13>

<Abstract>

## New Interpretation of Hongikinkan(弘益人間) Idea

Jeong, Young-Hun

Hongikinkan(弘益人間) idea is the founding principle of old Joseon and education principle of modern Korea. Generally it was translated as the greatest service for the benefit of humanity. It was the hope and appointment of the ancient Koreans toward the society and human life. And the core orientation of Hongikinkan will be abridged as humanism or humanitarianism. The humanism of Hongikinkan demands that state, market, power, money, socio-cultural mechanism and all other technologies must help human's happiness. And it also urges man to serve for the happiness of community and other people.

The writer of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existing researches on Hongikinkan idea were written without compact analysis on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弘益人間’ & the context of Dangun myth. This article attempts new interpretation toward Hongikinkan idea by analysis of Chinese character ‘弘益人間’ & the context of Dangun myth.

The important information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The character ‘弘’ means ‘big and broadly’, and the previous translation as ‘broadly’

must be partial interpretation. The character ‘益’ means ‘to help someone’ and ‘make someone happy’. And ‘人間’ can be translated by 4 meanings : (1) community or human society, (2) human being(s), (3) the ruling people, (4) other people. The author of this article urges that the previous translation as ‘human society’ may be a partial interpretation.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interpretation of Hongikinkan idea must be multiplex and compact with the compositive meanings.

※ Key words : Hongikinkan(弘益人間) idea, Dangun myth, Old Joseon, Founding ideology of Korean people, Educational principle, Humanitarianism.